

자메이카 스카음악에 대한 연구

고경미,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 baso2015@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f Jamaica Ska Music

Kyung-Mi Koh,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메이카 음악 중 스카가 탄생된 배경과 역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K-POP”과 같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음악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스카는 전 세계 음악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스카의 음악적 특징 중 리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악기편성 및 자메이카 스카 장르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뮤지션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을 알아보았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스카장르가 앞으로 대중공연예술 및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유익한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발전할지를 알아보았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스카장르가 “K-POP”과 더불어 “K-SKA”로 대중공연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서 론

전 세계 음악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자메이카 음악인 스카는 각 지역의 음악과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장르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인한 스카탄생의 배경과 스카로부터 발전된 여러 장르를 알아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자메이카의 대중음악인 스카를 시작으로 락스테디, 레게, 덩, 댄스홀 등으로 발전을 해왔다.[스카>락스테디>레게>덩>댄스홀]순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즉, 스카는 레게의 모체라 할 수 있다. 자메이카의 청년들이 미국의 R&B와 ROCK의 리듬에 접하게 되면서, 그의 혼합인 “SKA”라는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 냈다. 아프리카의 전통 민속음악인 멘토(Mento)와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R&B)와 영국의 록(ROCK)이 합쳐져 스카(SKA)라는 장르가 탄생되었다.

아프리카의 전통 민속음악인 멘토(Mento)와 카리브 해 지역의 음악인 칼립소(Calypso)를 바탕으로 리듬 앤 블루스(R&B)와 재즈(Jazz)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서인도제도의 트리나드섬에서 탄생한 칼립소(Calypso)음악에 맞춰 춤추기 위한 리듬을

입히면서 “캐리비안 멘토”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 나갔다. 여기에 맞물려 당시에 미국에서 불어닥친 재즈(Jazz)의 유행도 영향을 끼치면서 캐리비안 멘토와 칼립소, 미국의 재즈가 어우러진 “SKA”가 탄생하였다, 1956년 미국의 록(ROCK)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했을 무렵에 자메이카에서 본격적으로 스카(SKA)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스카는 급속도로 자메이카 인들이 거주하는 런던에 전파되어 영국의 대표적인 리듬 앤 블루스(R&B), 아티스트인 조지 패임(George Fame)이 그의 밴드 블루 플레임즈(Blue Flames)와 함께 플레밍고 클럽에서 스카“SKA” 음악을 연주하면서 삽시간에 화제를 모으게 되었다. 스카는 이후 락스테디, 레게로 발전하고, 1960년대 영국의 유행모드와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자메이카를 상징하는 음악이 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2. 본 론

2.1 음악적 특징

자메이카의 한과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 흥겨우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특징이 있다.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서양의 대중 음악이 화성적 요소와 자메이카 흑인 특유의 리듬이 접목되어 만들어졌다. 1950년대 후반 자메이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발전한 음악으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기쁨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서인도 제도의 트리니다드섬 카리브해 지역에서 탄생한 칼립소 음악과 자메이카의 전통민속음악인 멘토를 바탕으로 리듬 앤 블루스와 재즈가 결합되고 거기에 관악기 소리를 포함시켜 흥겨운 느낌을 주는 스카 리듬이 만들어졌다.

2.2 리듬적 특징

스카음악에서는 드럼과 베이스가 독창적이다, 2박과 4박에 악센트를 주며 림 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틴음악의 영향으로 필 인에서 팀 발레스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킹베이스라인과 오프비트를 바탕으로 하는 리듬이 특징이다. “약박”이라 부르는 오프비트에 얹어진 기타소리에서 따온 의성어로 자메이카에서 발달한 “관악기”위주의 악기편성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를 접한 뒤 자메이카의 전통음악인 멘토와 리듬 앤 블루스에 관악기 소리를 포함시켜 흥겨운 느낌을 주는 리듬인 레게에 영향을 주었다.

2.3 화성적 특징

스카 장르에서의 코드진행은 팝음악의 코드진행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초기 스카는 기존의 곡들을 그대로 연주하되 리듬을 오프비트로 바꾸어 연주했다. 메이저 곡에서는 1도-5도의 진행이나 1도-5도-4도의 진행처럼 단순한 진행이 마이너 곡에서는 1도-7도의 반복적인 코드진행이 많이 사용되었다.

2.4 악기편성

관악기 위주의 편성으로 트럼펫, 트럼본, 알토색소폰, 테너색소폰,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콘트라베이스, 건반, 메인보컬로 편성되었다.

2.5 해외에서 활동한 스카팀 뮤지션

카운트 오씨(Count Ossie), 데릭 모건(Derrick Morgan), 스카탈라이츠(The Skatalites), 밀리 스몰 웨일러스(Mille Small Wallers)



[그림1] 웨일러스(Wailers), 출처 Naver

2.6 국내에서 활동하는 스카팀 뮤지션-“유희스카”

연희 컴퍼니 “유희”와 킹스턴 루디스카가 협력하여 결성된 밴드팀이다. 연희 컴퍼니 “유희”의 7명과 킹스턴 루디스카의 “스카” 8명이 합쳐져 유희스카가 결성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 층을 지닌 자메이카의 스카음악과 한국인에게는 일상 속 놀이의 성격을 지닌 “유희”가 만난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인다. 열다섯 명의 멤버들이 무대와 관객을 압도적으로 장악하여 신바람나는 공연을 펼쳐 나간다. 신명이라는 정서를 공유한 “유희스카”는 스카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다가가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 좀 더 색다른 음악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호강하게 하는 대중적 예술 공연이다, 연희 컴퍼니 유희는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의 “YOU-喜”로 젊은 유희꾼들이 모여 새로운 한국적 공연을 창작하는 단체이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놀이이면서 일상이었던 연희(사물놀이, 탈춤, 판소리 등)를 현시대의 젊은 관객들도 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다. 스카 이후 발전한 록스테디, 레게 등 자메이카에서 파생된 음악 스타일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 한바탕 신명나게 뽐어내는 흥겨움이 절로 나는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물한다. 연희 컴퍼니 “유희”와 “킹스턴 루디스카”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민속 음악과 자메이카의 전통음악과의 절묘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의 전통 음악과의

결합인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불협화음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카음악에 국내의 전통연회를 더해 절묘한 조화를 이뤄 흥을 폭발하게 하고 관객들은 그 흥을 참지 않고 공연하는 뮤지션들과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그림3] 국립극장

2.6.1 활동내역

2022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첫 공연
2024년 2월 음원 발매 및 앨범 발매 정기공연
2024년 유희스카 1st 앨범 발매기념 판서트
(판소리+콘서트) 공연
2024년 싱가포르, 인도, 일본 공연 등 예정

2.6.2 대표곡

길놀이 “유희스카 대취타”
비나리축원 “유희스카 축원”
휘모리 스카의 “East & West”
구름나팔 소리, 스카난봉, 유희스카 아리랑
자메이카 판소리 “참사랑가”
관객과 함께하는 구름 사물놀이 “고인돌”
사물놀이를 재해석한 “비온다”
준비된 자들을 위한 위밍업 “두근두근”, “오늘밤은”,
“원푸리”, “뱃노래”, “민요연곡” 등 다수의 곡이 있다.

2.6.3 멤버 구성 및 악기 편성

이동근 : 보컬/뽕과리, 오승원 : 장구, 지경태 : 북
안태원 : 바라, 성유경 : 징, 임영호 : 목탁,
천성태 : 태평소(이상 연희컴퍼니 “유희”멤버)
이석율 : 보컬/퍼커션, 최철욱 : 트럼본, 서재하 : 기타
김정근 : 트럼펫, 성낙원 : 색소폰, 피인혁 : 베이스
임채선 : 키보드, 서재하 : 기타 (이상 킹스터루디스카
멤버)



[그림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자메이카 음악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스카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와 어떻게 융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카라는 장르가 아직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메이카 음악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음악과의 결합과 같은 부분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의도에서 연구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 되므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은 대중음악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장르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무한하다는 견해로 “K-POP”과 더불어 “K-SKA”가 하나의 장르로 발전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대중음악시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또한, 대중음악 교육 및 공연예술에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았다.

참 고 문 헌

- [1] All music 2007, Naver. Kingstone Rudieska
- [2] 유희스카, 국립극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